

“극락강역 문화재생사업 백지화 신중해야”

김나운 시의원 “예산·계약문제·매몰비용 등 대책 필요”

예산·행정력 낭비 불가피...다양한 관점 심사숙고 주문

광주시가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 사업’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시의회 김나운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6·사진)은 11일 광주시 문화재

육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는 2020년부터 진행된 극락강역 폐사일로(화물 저장용 창고) 재생 사업의 여건 변화와 공사비 증가로 인한 사업 규모 축소가 맞물려 최종 사업 중단을 검토 중”이라며 “공사와 관련된 예산



및 계약 문제와 매몰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 사업’은 광산구 신가동에 위치한 국내 가장 작은 간이역인 극락강역 내 흙물로 방치된 현대시멘트 사일로(화물 저장용 창고)를 개·보수해 광주시의 독특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사업

이다.

세부 시설로는 전시 공간, 시민 활동 공간, 카페테리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비 상승과 도시계획시설 문제로 사업 규모가 1천165㎡(5층)에서 384.45㎡(2층)으로 크게 줄었고, 토지 임대료 인한 비용도 2022년 11월부터 5년 동안 계약돼 있어 매년 2천700만원씩 계속 지출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 사업’의 공사 계약 착공을 9월로 연기한 이후 다시 한 번 연말로 변경한 상태다.

사업 추진율은 30%로 현재 설계용역은 일시 중지됐다.

김나운 의원은 “문제는 공사 중단으로 인한 후속 조치들로 총예산 43억원(국비 19억원·시비 24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15억4천만원이며 이 중 14억9천만원이 국비”라며 “설계비용 및 임대료 등의 매몰 비용도 4억

5천만원 가량이고 향후 공사 지연과 취소에 따른 배상금과 자제 계약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러 사정 변경으로 사업이 중단되면 그동안 투입된 예산 및 행정력에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의 실효성은 물론, 시민 활용 발전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성강 기자



“성평등 함께 만들어요” 12일 오후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성친화도시 정책발굴을 위한 ‘여성 행복응원 네트워크 정책포럼’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유관기관 대표 등 여성 참석자들이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양성평등’ 도민체감형 여성 정책 모색

전남여성정책포럼 의제 발굴 발표회

전남도는 12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따뜻한 동행, 여성·가족이 함께하는 전남 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2024년 전남여성정책포럼 의제발굴 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는 김은숙 전남여성정책포럼 상임대표,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등 100여명이 모여 지역 여성과 도정 현장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보다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 ‘기후변화와 AI 시대 양성평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특강, 4개 권역 의제 주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지사 표창을 받은 3권역 부대표 정신정 전남남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강진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전남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여성 권익증진과 양성평등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역 현안 주제발표에선 ▲아이 낳기 좋은 전남 만들기 2세 미만 영아 조제분유, 기저귀 값 확대 지원 ▲출생·양육 지원, 0세부터 19세까지 직불금으로 지원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한 식구(食口) 밥상·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반찬제공 서비스 등을 공유해 호응을 얻었다. /김재정 기자

▶1면 ‘재활용 쓰레기’서 계속

북구 외에 동구와 서구도 올해 청소차 발판을 제거했다. 동구와 서구 역시 청소차량의 발판을 제거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수거율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다는 의원은 “청소차량 발판을 제거하면 청소차에 타고 내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 쓰레기 수거율이 급감할 것으로 예견됐음에도 광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청소 업무가 자치구 사무라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와 자치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쓰레기 수거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을 자치구별로 파악해 필요하다면 청소차를 증차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지원 축소 전남 마을기업 존폐 기로

최선국 도의원 “332개소 중 123개소 휴업·폐업 상태”

전남도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형식적인 성과 위주로 운영되면서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사진)은 최근 일자리투자유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마을기업이 총 332개소(전남형 예비마을기업 123개소, 행안부형 마을기업 209개소)에 달하지만 이 중 123개소가 휴업 또는 폐업 상태”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전남 마을기업 중 1/3 이상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상황은 마을기업의 내실있는 운영 관리와 질적 성장보다는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했던 전남도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5월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마을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1마을 1마을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현 정부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2024년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되면 서마을기업의 실질적인 육성은 물론, 존폐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전남도가 마을기업 운영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 숫자만 부풀려 실적을 홍보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특히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이 휴·폐업된 기업에서 방치되고 있으며 환수 조치도 미흡하다”고 형식적인 실제 조사와 사후 관리를



질타했다.

실제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 물품 처리 내역은 단 2건에 불과해 기초적인 자료 파악과 실태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실제 조사를 통해 운영이 어려운 마을기업은 지정을 취소하고 내실 있는 마을기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마을기업이 단순한 성과 지표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갖추도록 전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정 기자

취업 등 20대 현실 고민 토로

姜시장, 광주여대생들과 현장 대화

강기정 광주시장은 12일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청춘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를 주제로 청년들과 소통했다.

이날 대화에는 광주여자대학교 대표 특성화 학과인 항공서비스학과, 미용과학부, 반려동물보건학과 학생들이 주로 참석했다.

이날 학생들은 20대 초중반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시장님에게 청춘의 의미란?”, “청년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한다면?” 등을 질문했다. /박성강 기자

강 시장은 “성장을 위해 강강한 마디를 만드는 대나무처럼 여러분의 청년 시절 마디를 만드는 시기일 것이다. 그러나 저의 20대, 지금의 20대는 너무 달라 조언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저의 98년생 딸과 99년생 아들도 취업 고민을 하고 있어 공감의 된다. 조심스레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강 시장은 화제가 됐던 가수 이효리씨의 국민대 졸업식 축사를 언급하며 광주시의 슬로건인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의미를 함께 설명했다. /박성강 기자

市, 도시계획위원 27일까지 공모

광주시는 12일 “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기가 오는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위해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 분야의 심의·자문 역할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등을 제외하고 관련 전문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다.

모집은 ▲토지 이용 ▲건축·주택 ▲교통 ▲방재 ▲환경·녹지 ▲문화·복지 ▲경관 등 7개 분야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27일까지다. /박성강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점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화정동757-34 힐스테이트1단지(763세대)정문앞 시교육청정문점 대로변 대지275㎡ 3층건물 급매11억7,000(조정가)

광주역앞(중흥동704-13,14) 6차선 대로변 상업지역 대지591㎡(평수추가가능) 2층건물 음식점, 커피카페, 전시장등 최적 급매3.3당1,200만원(조정가)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2차선도로점 일반공업지역 9,900㎡(면적추가또는 분할도가능) 급매30억 ***국내최대동굴관광지(예정)입구 투자가치도 최고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내대지 야영장, 장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인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급매전문] **즐거움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가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